

**Kichang Choi**

## 최기창의 계속되는 역설극

고원석, 공간화랑 큐레이터

인식은 주관과 객관의 상호작용이다. 선형의 과정에서 얻어진 여러 조각들은 면밀하게 조합되어 어떤 주관적 체계를 형성하게 된다. 외부로부터 유입되는 모든 객관은 철저하게 그 구조의 틀 위에서 존재하게 된다. 결국 인식의 주체가 있는 한, 객관은 끊임없이 주관의 영역으로 수렴된다. 이것이 인식의 주체를 분리하고 인식의 과정을 생각할 수 없는 이유이다. 최기창의 작품들은 스스로 어떤 인식의 대상이기보다 추상적인 대상을 인식하는 작가 자신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발현되는 통로의 속성을 지니고 있다. 그는 인식의 객관성에 끊임없이 질문을 던져왔다.

최기창이 작가로서의 활동을 시작한 건 2001년 시간갤러리에서의 개인전, <슬픈 패러독스>에서였다. 예상과는 다른 미술대학교육의 경직성에 답답함을 느꼈던 최기창은 졸업 직후 어수선한 심정으로 얼마간의 시간을 보냈다고 한다. 당시 그에게 현대 미술은 다소 무겁고 버거운 대상이었던 것 같은데, 그의 첫 개인전에서 등장했던 작품들을 통해 그가 제도의 무게를 상당히 의식했음을 미루어 볼 수 있다. 그 전시로 인해 어느 월간지에서 주목할 만한 신예 작가를 발굴하는 'New Face' 중 하나로 선정되기도 했으니 그의 첫 개인전에 대한 외부의 평가는 그리 나쁘지 않았던 것 같다. 그러나 정작 자신은 당시의 작품에 불만이 많았다고 고백한다. 작가로서 갈 길이 멀다는 것과 현실적인 상황에 대한 답답한 심정은 그가 한동안 영국에 머무르게 한 동인이 되었다.

2003년부터 3년여의 시간 동안 그는 영국에서 공부를 했다. 새로운 표현의 방법론을 처음부터 다시 공부해 보겠다는 그의 결심은 의외의 역설적 상황을 만나 와해되기에 이른다. 일정시간이 지난 후 그가 맞닥뜨린 것은 바로 공고한 단절의 벽이었다. 소통의 난관은 그로 하여금 후기 식민주의나 제3세계 이론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기도 했다. 기실 영국은 서구 백인들의 보수적 주류문화가 아직도 강력하게 존재하는 사회이다. 어쩌면 그가 가진 불만은 특수한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서구 문화권이 중심이 된 고급 예술의 경직된 속성에 대한 것이었을 수도 있다. 최기창은 그들이 쳐놓은 그 위계적 제도 장벽을 뚫고 내부로 진입하는 것이 불가능에 가깝다는 결론을 얻게 되었다. 그렇게 한계 상황에서 절망을 체험했을 때, 그는 유학을 통해서 뭔가를 얻어 내겠다는 일말의 기대를 포기하게 되었고, 무언가를 남기겠다는 미련을 제거해 버렸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그에게는 새로운 창작욕이 발동하기 시작했다. 자신에게 위압적으로 다가온 일체의 환경에 대한 불만스러운 감정을 자연스럽게 표현하게 된 것이다. 'Intervention' 연작이 바로 그렇게 출현한 작품들이다.

그는 자신을 둘러싼 사회나 제도에 탄죽을 걸고, 신경을 거슬리게 해 보고 싶었다고 말한다. 그래서 당시 자신의 작업에 몇 가지의 원칙을 적용했다. 저렴한 재료와 조악한 외양, 보존되기 어려운 형식 등이 그것이다. 더욱이 당시 그의 작업들은 독립된 오브제로서 성립하는 것이 아니었으며, 어떤 행위가 결부되지 않으면 작품으로 성립할 수 없는 해프닝적 속성을 가지고 있었다. 예를 들면 전시장 구석에서 조금씩 물이 넘쳐 밖으로 흘러나오는 양동이 같은 것이 그것인데, 작품인 줄 모르고 전시장 환경을 더럽힌다는 이유로 수시로 치워지는 그 물 양동이 들은 최기창이 작품임을 강하게 주장하며 다시 전시장 원위치에 갖다 놓는 행위가 개입할 때 비로소 작품으로서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그는 가벼운 형식에 자신의 행위와 현장의 시간성을 담아내는 일련의 작품들을 제작했다.

영국에서의 체류를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온 최기창은 2009년 토탈미술관 The Room 프로젝트로 본격적인 활동을 재개했다. 이 전시에서 그는 보는 것과 인식하는 것 사이의 간격에 대한 관심을 표현한다. 그가 설치했던 작품은 영국에서 공부하던 시절 발표했던 Intervention 연작들 중 유리문에 설치했던 작품들의 연장으로 볼 수 있다. 이들은 어떤 풍경이 인쇄된 종이를 유리 위에 붙여놓음으로써 투명한 창 너머 실제 풍경을 보는 관습적 행위를 교란시키는 과정을 유도한다. 그는 유리로 되어 있는 전시장 한쪽 벽에 그 유리 너머 실제로 보이는 풍경을 촬영하여 사진으로 출력한 재료를 부착시켜 놓았고 맞은편 흰 벽면 앞에는 비닐로 된 가벽을 설치해 놓았다. 출력된 이미지로 재현된 풍경의 투명성은 외부의 일조량과 연동되고, 비닐 가벽 너머의 풍경은 관객과의 사이에 놓인 비닐과 관객이 존재하는 영역에 살포된 수증기로 인하여 불투명한 상황으로 인식되는 환경이 연출된 것이다. 비닐막 뒤에 있는 조명은 관객의 동작을 감지하는 센서의 작동에 의해 플래시가 터지는데, 대부분의 관객들이 원래 어떤 정해진 순서에 의해 불빛이 반짝거리는 걸로 인식한다고 한다. 그 얇은 비닐막 한 겹과 연기만으로 모든 상황은 불명료한 혼란이 되어 버리고, 인식은 지극히 수동적인 자세를 취하게 되어 버림을 알 수 있다.

최기창의 인식에 대한 관심은 다양한 작품들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고 있다. 작품 'Half-moon'(2009)은 보름달의 이미지를 반구형으로 재현한 작품이다. 보름달이라는 대상은 지상에서 늘 평면의 원으로만 '보이거나', 우리의 과학적 지식에 의해 구형으로만 '인식 된다'. 그는 이성의 영역이 제어하는 형상을 넘어 모든 가식과 여과를 제거한 채 순수한 눈으로 바라본 형태를 재현하고자 하였다. 이는 그가 언급한 '자발적 단절'의 시각으로 대상을 바라본 것이다. 그러한 작가적 시각은 '3D-TV'(2010)나 'Frame'(2010) 등의 작품들에도 잘 나타나 있다.

사물에 대한 인식과 직관의 경계를 모색하기 위해 최기창은 다양한 재료와 방법에 대한 실험을 지속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러한 그의 실험은 장소를 해석하여 창작을 시도하는 공공미술 형식의 작품에서도 계속되었다. 경기도 미술관의 외부 공간에서 진행 중인 단체전 <유원지에서 생긴 일>에서 최기창은 전시장 앞 야외부분에 존재하는 배수로의 금속 망을 자신의 작품으로 대체해 놓았다. 작품이 놓이는 환경의 온,습도를 비롯한 제반 여건을 수용하며 일정기간 부식을 거듭하는 재료를 사용한 이 작품에는 그가 평소 자신의 작가적 견해를 함축시켜왔다고 생각하는 자신의 문장들을 커팅해 넣었는데, 비가 오면 그 문장들 속으로 빗물이 모여 배수되는 것이다. 사실 장소 특정성은 그의 작품들에서 일관되게 드러나는 요소이다. 대부분의 작품들은 장소에 대한 고민과 분석으로부터 창작의 단서를 찾았다는 사실은 그의 작품들을 유심히 훑아보면 간취할 수 있는 것이기도 하다.

그의 폭넓은 실험의 반경에는 회화도 포함되어 있다. 2009년에 개인전을 통해서 발표하기도 했던 회화 작업에서 그는 낮과 밤의 구분이 없는 시간에 전후의 방향성이 없는 움직임을 증명도와 중채도의 색조를 통하여 재현하고 있다. 연한 핑크빛이 감도는 색조는 잠시간의 달콤한 존재 이후 금세 사라져버릴 것 같은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다. 회화도 지속적으로 추진 중인 매체 실험의 일환이라고 말하는 최기창은 회화의 전형성의 범주 내에서 한 동안 실험을 지속할 것이라는 결심을 피력하기도 했다.

알고 있다고 굳게 믿는 것들이 사실 안다고 착각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을 최기창은 몇 번인가 말하기도 했다. 인식에 대한 그의 견해는 어쩌면 삶에서 겪어 왔던 여러 가지 경험들로부터 얻어진 회의적 방법론일수도 있다. 그가 나름의 사유를 표현하는 방법에서 개입되는 매체들은 분명한 존재의 당위성을 가지고 있다. 그가 선택하는 매체는 매체 자체의 속성에 집중해서라기보다 추상적이고 비가시적인 상황에서의 표현을 위해 적절한 것을 자유롭게 고르는 것에 가깝다. 어제의 기억으로부터 단절하고 늘 새로운 오늘을 살아가는 존재로서의 예술가에 대해 언급한 버트런드 러셀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다는 최기창은 삶의 불확실성에 대한 역설극의 무대를 계속해서 장치할 것이다.

## 1. Recent works

**wobniaR** (2010)

**Sign** (2010)

**There is no place like home** (2010)

**배수로 Canal** (2010)

**3D-TV** (2010)

**Frame** (2010)

**반달 The Half Moon** (2009)

## 2. Windows (2009)

## 3. The Marvelous in the Everyday (2009)

## 4. Intervention Series

**Finger Food** (2006)

**Glass door** (2006)

**Table** (2006)

**Baby** (2006)

**Bucket** (2006)

**Coke bottle** (2006)

**Pram** (2006)

## 1. Recent works

*wobniaR*

*Sign*

*There is no place like home*

*배수로 Canal*

*3D-T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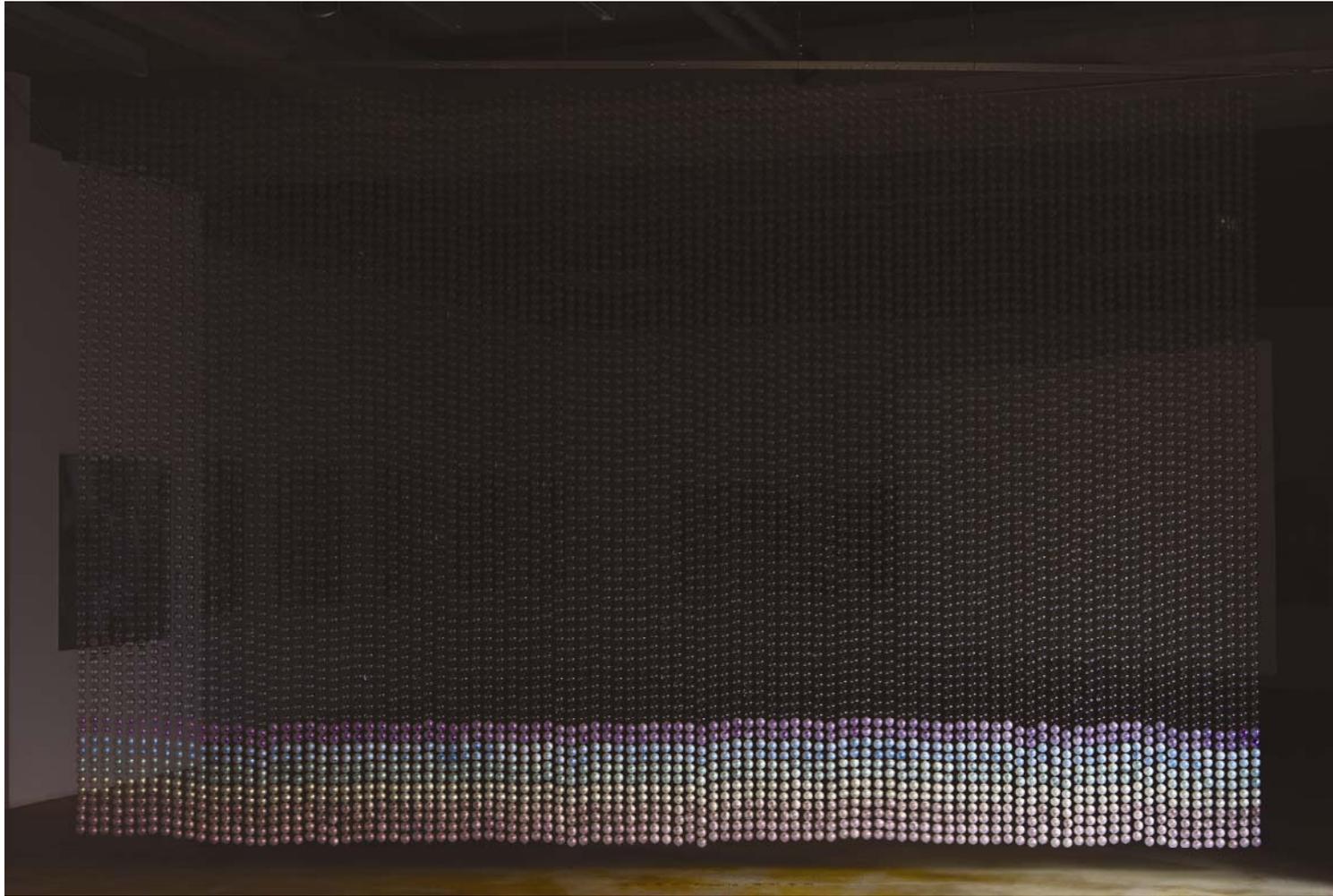
*Frame*

*반달 The Half Mo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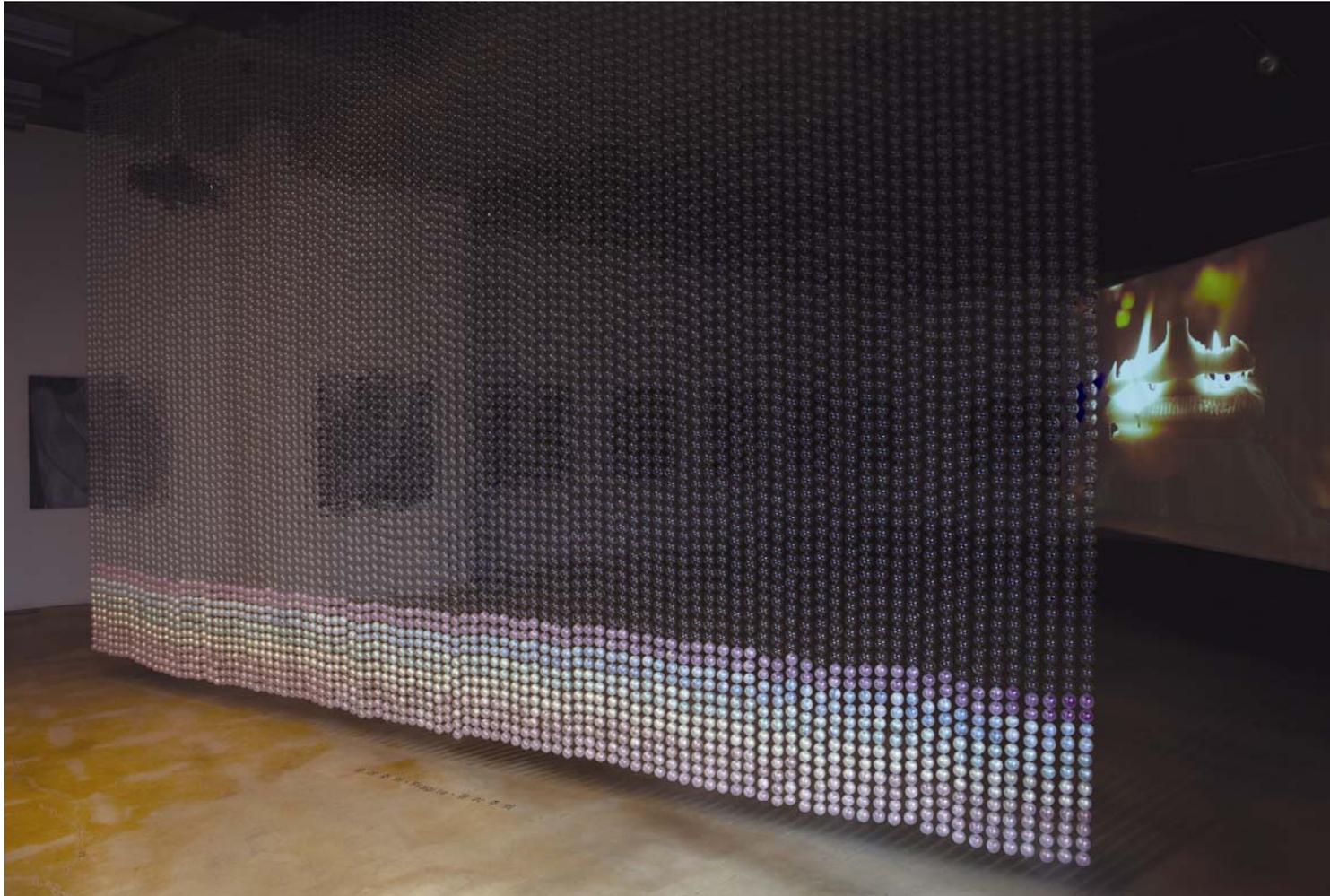
*wobniaR*

<wobniaR>, 2010, Glass beads, Dimension variab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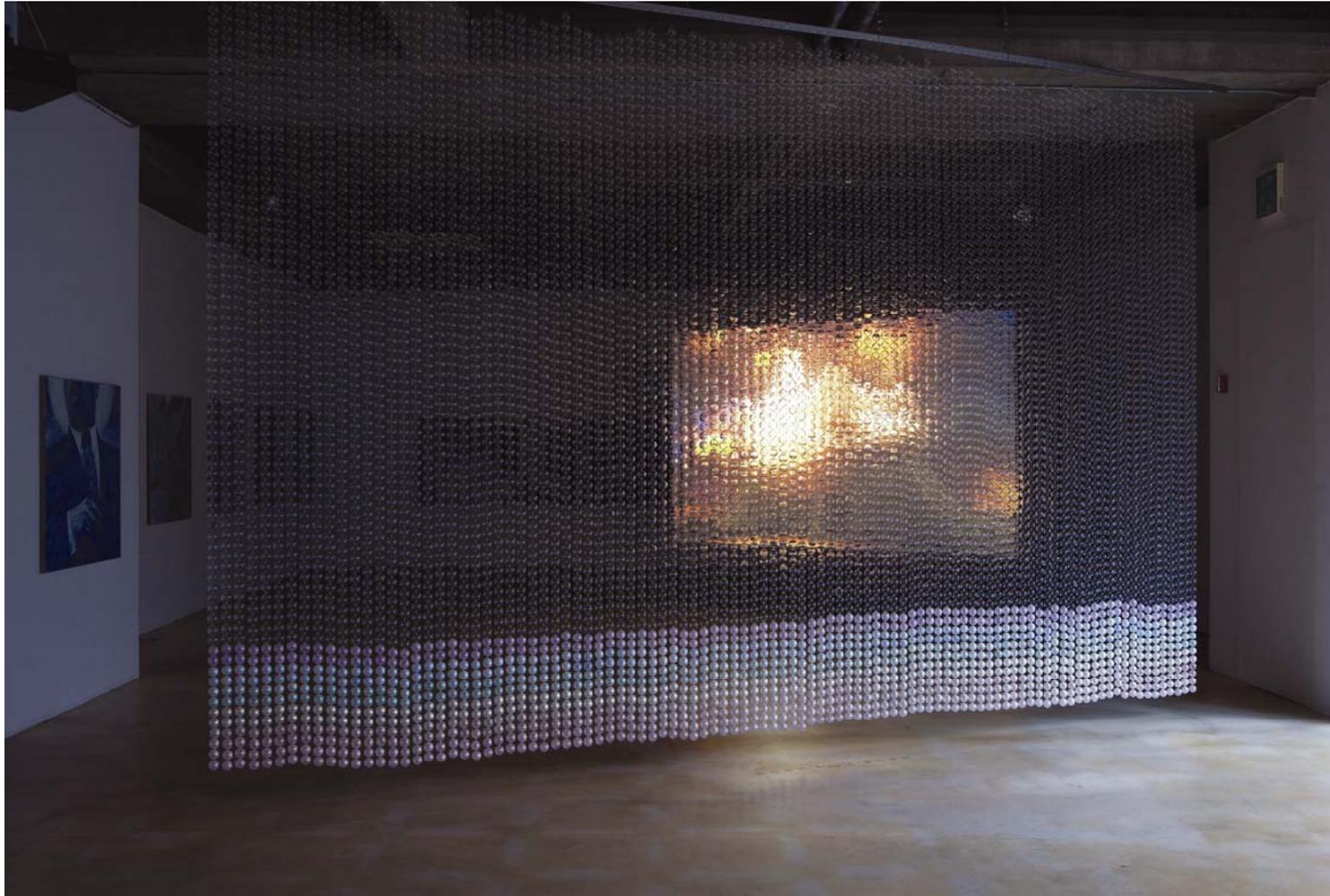
전시장을 가로질러 설치된 유리구슬 커튼 작업 <wobniaR>(2010)는 관객의 이동경로를 가로 막고 설치되었다는 점에서 <Intervention> 연작(2006)과 맥락을 공유한다. 하지만 무심코 통과해 가거나 쉽사리 비껴가기 애매하게 연출된 상황은 한층 더 알갭다. 주위에 생기는 작은 움직임의 영향에도 서로 부딪혀 산산조각 날 지 모를 수많은 유리구슬들은 투명한 만큼이나 연약하기 때문이다. 유리구슬 커튼을 기준으로 양분된 공간에 전시된 작품들과 관객들의 입장(立場)은 고스란히 만 오천 개의 유리구슬에 역(逆) 투사되고 있다. 다만 표피가 채색된 구슬들만이 존재하지 않는 무지개의 빛깔을 무한히 비추고 있을 뿐이다.



<wobniaR>, 2010, Glass beads, Dimension variable



<wobniaR>, 2010, Glass beads, Dimension variable



<wobniaR>, 2010, Glass beads, Dimension variable

*Sign*

<Sign>, 2010, Neon signs, Dimension variable

어두운 방안에 핑크 빛 네온으로 쓰인 이 텍스트 작업은 색채의 달콤함과 달리 모호한 회색 빛의 의미 범주를 가진다. 두 벽면과 맞닿은 모서리에 걸쳐 3개의 부분으로 나뉘어 쓰인 텍스트 'RESPONDABILITY'는 책임감을 뜻하는 'responsibility'를 'respond'와 'ability'로 해체하고 이것을 다시 'and'로 연결한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서 분절된 단위에 의해 (비)의도적으로 드러나는 또 하나의 의미단위는 'DNA'이다. 확정된 개념으로 고정된 것이 아닌, 불안정하게 쓰여 있는 텍스트를 제시하는 상황은 작업에 새로운 컨텍스트를 끌어들인다. 관객의 이동에 따라 텍스트는 연속선상에도 놓이게도, 분절되고 독립적인 각각의 단어로 인식되기도 하는데, 이러한 구조는 필연적으로 모호한 상관 관계에 놓이거나 불명확한 의문을 남기는 영역으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책임 있게 응답하는 것'과 '능력' 사이에 존재하는 '그리고' 혹은 '유전자'는 과연 무엇을 위해 속단적인 의미부여를 지연시키고 있는 것일까.



<Sign>, 2010, Neon signs, Dimension variable



<Sign>, 2010, Neon signs, Dimension variable

*There is no place like home*

<There is no place like home>, 2010, LED, wood, Dimension variable

창동 스튜디오의 2층 거실에 설치된 <There is no place like home>은 2010년 창동 오픈 스튜디오를 위한 공간변형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진행된 설치 작업이다. 영어 철자를 타공한 아치형 파티션으로 복도와 거실공간의 접합지역 상부를 나눈 이 작업은 이전 보다 아늑한 거실 공간을 확보해 주는 공간구획의 기능과 더불어 복도를 오가거나 계단을 오를 때 시선의 변화에 따라 구멍을 통해 나오는 빛의 움직임이 생기는 시각 효과를 갖고 있다. ● 2010년 개관 8주년을 맞이한 창동 스튜디오는 그 동안 35개국에서 온 186명의 작가들이 짧게는 3개월, 길게는 1년 동안 머물면서 치열하게 작업을 하였다. 입주 기간 동안 작가들은 이 거실에 모여 사소한 일상의 정보에서부터 경제, 사회, 문화에 이르는 방대한 주제의 대화를 나누었으며 서로의 작업에 대한 것까지 폭넓은 교류의 장을 이루었다. 아마도 창동에 체류하는 동안은 누구나 한 번쯤 현재의 노고로 인해 자신의 집을 그리워했을 것이고, 이 지점이 바로 작업의 모티프가 된다. ● 사용된 문장은 'Be it ever so humble, there is no place like home', 아무리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집만 한 곳은 없다는 의미의 영어표현에서 발췌된 것이다. 의도적으로 이미 알려진 문장의 일부만을 사용함으로써 생기는 의미상 공백을 통해 이 작업은 슬며시 진의를 드러낸다. 그것은 안락한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직접적 해석의 강요가 아닌 '집 보다 나은 곳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곳에 머물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는 의미를 되새기게 한다는 점이다.



<There is no place like home>, 2010, LED, wood, Dimension variable



<There is no place like home>, 2010, LED, wood, Dimension variable

*배수로 Canal*

<배수로 Canal>, 2010, Cor-ten steel, Dimension variable

<배수로\_Canal>(2010)은 기존의 장소, 즉 미술관의 건축적 구조 속으로 스며들어 그 장소와 더불어 삶을 영위하도록 제안된 작업이다. 경기도미술관의 경우, 주 출입구 방향의 녹지화된 수(水)공간 주변을 따라 배수로나 배치되어 있는데, 이것은 미술관 주변을 오가는 방문객들의 시선을 유도하는 동시에 실질적으로 그들의 동선을 구성하기도 한다. 이러한 기존의 요소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며 제안된 <배수로\_Canal>은 일반적으로 동일한 크기의 구멍이 반복적으로 뚫려있거나 격자의 주물로 제작되어 있는 배수로 덮개의 재질과 형태에 미묘한 변화를 주어 새로운 혹은 낯선 시각효과를 유도한 작업으로, 여전히 배수로로서의 기능 역시 충실히 수행하게 된다. 즉, 텍스트 형태로 치환된 구멍은 배수의 기능을 수행하는 동시에 텍스트가 담고 있는 개념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시각적 기능도 함께 수행한다. 이렇듯 띄어쓰기 없는 일련의 텍스트로 구성된 이 작업은 숨쉬 틈조차 허락되지 않는 우리의 반복적인 일상의 단편을 반영하고 있다. 의외의 장소에서 우연히 발견된 이 텍스트가 과연 미술관의 주변을 맴돌던 발걸음을 미술관 안으로 이끄는, 혹은 반복된 삶에 변화를 가져오는 사색의 단초를 제공해 줄 수 있을까? 그 답은 알 수 없다. 하지만 미술관을 에워싸고 있는 '조금은 다른' 이 배수로를 통해 '안락한 익숙함'의 지루한 반복 속에서 '낯선 익숙함'을 인식하도록 하는 것, 그리고 그것에 과감히 직면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나의 작업이 꿈꾸는 '또 다른 세계로 향하는 의식적이고 자발적인 단절의 행위'이다.

기존의 미술관 배수로를 드러내고 새로운 배수로를 만든 이 작품은 주변 환경과 조용히 맞물려 호흡하며 이야기를 만들어 간다. 작품 안에 빼곡히 들어찬 문장처럼 실 틈 없는 우리네 일상을 예술로 인도하는 수로 역할을 수행하길 자청한다.

-경기도 미술관

지리적위치가 명확하지 않은 세상의 시간이 적용되지 않는 것 같아 보이는 평온 의어느 지점은 너무 밝지도 너무 어둡지도 않으며 춥거나 덥지도 혹은 습하거나 건조하지도 않은 회색의 점이 지대일 뿐만 아니라 희망과 절망이 동시에 조우하는 교차점 위와 통속적으로는 도무지만날 수 없을 것만 같은 성실과 나태의 평행 선 사이에 균일한 좌표 값을 갖는 목적 불투명의 경이로운 일상이 심없이 되풀이 되며 오직 금기 시되는 것은 사소한 금증을 갖거나 혹여 생겨난 금증을 누군가에게 묻거나 따져 선안 되는 것이며 설령 안다 해도 아는 내색을 한다거나 대답 또한 해선 안 되는 암묵의 계율에 따라 불명확성의 상태를 꾸준히 유지해야만 하는 것은 아마도 까마득히 먼 과거 의어느 시간으로부터 절대 멈출 것 같지 않아 보이는 함박눈이 평평 내리던 겨울 어느 날 본능처럼 멍쳐 한 주먹 손아귀를 가득 채운 덩어리를 눈발에 놓아 굴러 놓고 이내 점점 커지고 불어나는 크기 만큼 비례해 기쁨의 정도도 부풀어 갔지만 곧 풀린 날씨 탓에 눈 덩이가 녹아버릴까 노심초사 했던 애착이 작은 환경의 변화라도 모든 걸 송두리째 앗아갈지 모른다는 궁극의 집단 최면과 망상의 균중 심리로 굳어져 정신적 안도를 취하는 사이 매일 찢다 지는 태양의 아름다움 만큼이나 무감각한 길들여진 성실에 제거된 불성실을 미덕으로 한 방치를 동력 삼아 일귀 낸 혁명적 삶엔 어떠한 번민도 선택할 이유가 없다



<배수로 Canal>, 2010, Cor-ten steel, Dimension variable



<배수로 Canal>, 2010, Cor-ten steel, Dimension variable



<배수로 Canal>, 2010, Cor-ten steel, Dimension variable



<배수로 Canal>, 2010, Cor-ten steel, Dimension variable



<배수로 Canal>, 2010, Cor-ten steel, Dimension variable

*3D-TV*



<3D-TV>, 2010, Paper cup, candle, Braun tube

*Frame*

<Frame>, 2010, Frame, Dimension variable

기존의 복도를 가벽으로 막아 빛의 난입을 막았다. 액자를 걸어 둘 자리만이 뚫려있어 빛이 새어 들어가지만 광량이 충분치 않아 그 안은 시커먼 타원의 형태만을 보여줄 뿐이다. 하지만 사람의 감각기관은 놀랄 만큼 예민해서 금새 공간을 감지하고 만다. 얼마나 지났을까? 암흑 속의 복도의 모습이 서서히 시야에 들어온다. 가깝지만 먼, 멀어 보이지만 늘 가까이 있던 표피적 관계를 넘어선 이해는 그만큼의 적응 시간이 필요하다.



<Frame>, 2010, Frame, Dimension variable



<Frame>, 2010, Frame, Dimension variable

*The Half Moon*

<반 달>, 2009, 알루미늄, 아크릴 보드, 형광등, 가변크기

<반 달>은 반구(半球)의 형태로 재현된 달과 이 반 쪽짜리 달을 글자 그대로 서술하는 제목이 연상시키는 이미지 사이의 간극, 혹은 그 둘의 충돌이 발생시키는 유머와 아이러니의 사이를 오간다. 그러나 감각적인 언어의 유희나 일반 상식을 뒤엎는 참신한 시각 이미지의 제시라기보다는 인식에 관련된 회의(懷疑)적 사고를 촉발시키려는 의지로 관심의 좌표축을 이동시키고 있다. ● 지구로부터 39만 킬로미터나 떨어져 있는 달은 육안으로 바라볼 때 그저 평평한 원형으로 '보일' 뿐이지만, 반복적인 학습과 교육으로 둥근 구(球)의 형상을 지니고 있음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 과학적 사고에 기댄 '알고 있음'에 대한 우리의 맹신은 지금 스스로 분명히 '보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일말의 의심조차 용납하지 않을 정도로 강력하다. ● <반달>은 과거 지구는 둥글다거나, 태양이 아닌 지구가 돌고 있다거나 하는 주장을 펼치던 과학자들이 비이성적 선입견에 저항하며 과학적 근거를 증명하려던 노고와는 역(逆)으로, 고착화된 사고에 회의의 여지를 마련하려는 방어적 시도에 대한 갈릴레이식 독백으로 남는다.

<The Half Moon>, 2009, Aluminum, acrylic board, fluorescent tubes, Dimension variable

*The Half-moon*, named after its eponymous hemispheric shape, is situated between the humor and irony generated from the gap or conflict between its visual image of a full-moon and the physical image associated with its title. However, the artistic intention to trigger a skeptical reaction or challenge our cognitive abilities is placed above the attempt to play upon words or a mere presentation of a visually unique image. While the moon—390,000km distant from the earth—looks like a flat circular shape seen from a distance with the naked eye, we know it is a sphere (thanks to elementary science class). Our blind leap of faith in this knowledge, dependent upon scientific evidence and theoretical thought that the moon is, in fact, sphere, is so strong as to disallow the slightest doubt about the shape of the moon—even though our optical experience of the moon tells us it is flat. Scientists and scholars since Galileo Galilei have struggled to demonstrate their scientific hypotheses against the irrational preconception that the moon is flat, also advocating that the earth is round and revolves around the sun. Contrary to their endeavors and such long-held wisdom, *The Half-moon* is a cheeky, anti-Galileo-like monologue that defers sarcasm in place of honestly skeptical responses against long-lasting fixed ideas.



<The Half Moon>, 2009, Aluminum, acrylic board, fluorescent tube, Dimension variable



<The Half Moon>, 2009, Aluminum, acrylic board, fluorescent tube, Dimension variable



<The Half Moon>, 2009, Aluminum, acrylic board, fluorescent tube, Dimension variable



Installation view at Mongin Art Center, Seoul, 2010

## 최기창 Kichang Choi

Born in 1973, Seoul, Korea

Currently lives and works in Seoul, Korea

더 이상 외면할 수도, 끝끝내 떨쳐버릴 수도 없을 문제들을 들추어내 불안과 불편으로 관람객의 잔잔한 의식세계를 잠식해가는 최기창의 작업은 우리가 영위해왔던 지난하도록 반복적인 일상과 그것이 아무런 의심 없이 간과되어온 상황을 자각하도록 선동한다. 그의 작업들은 때로는 적극적인 개입(介入)으로, 때로는 은유적인 매개로 우리의 의식 과정에 작용하며, 이해와 오해 사이의 간극과 충돌, 혹은 의외의 상승효과를 통해 끊임없이 성실함을 강요해온 사회에 대해, 그 성실함을 유지하기 위해 고안되어온 제도적 장치에 대해,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구축해놓은 사회적 편견과 고정관념에 대해 회의(懷疑)의 여지를 마련해왔다. 개인을 짓누르는 거대서사와 개인적 일상의 끊임없는 충돌 속에서 이 시대가 우리에게 강요해왔고, 아무런 의심 없이 간과되어 왔으며, 또 우리가 순응해왔던 모순과 불합리를 인식하고 직시하고자 하는 최기창의 태도는 자신과 세계 사이에 존재하는 팽팽한 대립 속에 스스로를 주체적으로 위치시키는 '자발적 단절'의 행위를 지향한다.

The works of Kichang Choi delve into the repetitive daily routines that are always with us to the point of unconsciousness, while also functioning as active interventions or metaphoric mediations that help perceive our everyday lives with new insight. Through the chasm and conflict between understanding and misunderstanding or unexpected synergy effects, his works elicit doubts and questions about society and its disciplinary nature, about institutional mechanisms devised to maintain its infrastructure, and the social prejudices and stereotypes formed as a result. Kichang Choi seeks to recognize and confront the paradoxes and the irrational that have been forced upon us and have been unquestioningly assimilated, to which we have adjusted amid constant conflicts between the grand narrative and individuals oppressed in their daily lives. Such attitudes are in pursuit of a "voluntary rupture" where individuals are self-reliantly positioned in heated confrontation between themselves and the outside world.

## 학 력

- 2006 Chelsea College of Art and Design 졸업(P.G.Dip.)
- 2001 홍익대학교 대학원 판화과 졸업(M.F.A.)
- 1999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판화과 졸업(B.F.A.)

## 개인전

- 2009 <The Marvelous in the Everyday>, 선 컨템퍼러리 갤러리, 서울
- 2009 <The Windows>, 프로젝트 스페이스 the room, 토탈미술관, 서울
- 2003 <욕망화>, 갤러리 라메르, 서울
- 2001 <슬픈 패러독스>, 갤러리 사간, 서울

## 단체전

- 2011 <SerrOne Biennale di Monza>, Villa Reale in Monza, 이태리
- 2010 <My dear...happiness consist of being able to tell the truth without hurting anyone>, 몽인아트센터, 서울
- 2010 <BIBLIOTHEQUE>, 갤러리 상상마당, 서울
- 2010 <유원지에서 생긴 일>, 경기도 미술관, 안산
- 2010 <레지던스 퍼레이드>, 인천 아트 플랫폼, 인천
- 2010 <INTRO>, 국립 창동 스튜디오 전시실, 서울
- 2009 <인천 국제 디지털아트 페스티벌>, 인천 세계도시축전 디지털아트관, 인천
- 2009 <MIND VACATION>, 에비뉴엘 롯데아트 갤러리, 서울
- 2009 <서교육십 2009: 인정게임>, KT&G 상상마당, 서울
- 2006 <Show Your Mind>, Triangle Gallery, 런던
- 2006 <Banquet Relay>, Banquet Room, Chelsea College of Art and Design, 런던
- 2003 <Italy Towel: 4인 작가 공동 프로젝트>, 갤러리 아트월, 서울
- 2002 <New Face 2002>, 토탈미술관, 장흥

## 수 상 & 레지던스

- 2011 경기창작센터 레지던시 스튜디오, 안산
- 2009-10 국립창동미술창작스튜디오, 서울
- 2002 New Face 2002 선정작가, 아트인컬처, 서울
- 2002 제22회 한국현대판화공모전, 특선, 관훈갤러리, 서울
- 2002 제2회 송은미술대상전, 송은갤러리, 서울
- 2000 제19회 대한민국미술대전,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 1999 제14회 무등미술대전, 대상, 광주시립미술관, 광주
- 1999 제19회 한국현대판화공모전,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 1998 제20회 중앙미술대전, 우수상, 중앙일보사 & 호암갤러리, 서울
- 1998 동아미술제,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 1997 제17회 한국현대판화공모전, 마로니에미술관, 서울

## 작품소장

- 중앙일보사, 서울
- 광주시립미술관, 광주

연락처: [an-artist@hotmail.com](mailto:an-artist@hotmail.com) / 010 6711 4481

## Education

- 2006 Postgraduate Diploma in Fine Art, Graduate School, Chelsea College of Art and Design, London, England
- 2001 MFA in Printmaking, Graduate School, Hongik University, Seoul
- 1999 BFA in Printmaking, College of Fine Arts, Hongik University, Seoul

## Solo Exhibitions

- 2009 *The Marvelous in the Everyday*, Gallery Sun Contemporary, Seoul
- 2009 *The Windows*, Total Museum of Contemporary Art, (the room project), Seoul
- 2003 *Desire Flower*, Gallery La Mer, Seoul
- 2001 *Sad Paradox*, Gallery Sagan, Seoul

## Group Exhibitions

- 2011 *SerrOne Biennale di Monza*, Villa Reale in Monza, Italy
- 2010 *My Dears...Happiness consist of being able to tell the truth without hurting anyone*, Mongin Art Center, Seoul
- 2010 *Bibliothèque*, Gallery Sangsangmadang, Seoul
- 2010 *Archives: Changdong Open Studio 2010*, IASK Changdong, Seoul
- 2010 *What's Happening in the Park: Works in the Open Air*, Gyeonggi Museum of Modern Art, Ansan, Korea
- 2010 *Intro*, Gallery of IASK Changdong, Seoul
- 2010 *Residence Parade*, Incheon Art Platform, Incheon, Korea
- 2009 *Incheon International Digital Art Festival 2009*, Digital Art Pavilion, Main Venue for Global Fair & Festival 2009, Incheon, Korea
- 2009 *Mind Vacation*, Lotte Art Gallery, Seoul
- 2009 *Seogyo Sixty 2009: The Game for Respect*, Gallery Sangsangmadang, Seoul
- 2006 *Show Your Mind*, Triangle Gallery, London
- 2006 *Banquet Relay*, Banquet Show Room, Chelsea College of Art and Design, London
- 2003 *Italy Towel*, Artswill Gallery, Seoul
- 2002 *New Face 2002*, Total Museum of Contemporary Art, Janghung, Korea

## Awards & Residence

- 2011 Gyeonggi Creation Center, Ansan, Korea
- 2009-10 IASK-Changdong Residential Art Studio, Seoul
- 2002 Finalist, New Face 2002, Monthly Art Magazine Art in Culture, Seoul
- 2002 Special Selection Prize, The 22nd Korean Contemporary Printmaking Competition, Kwansoon Gallery, Seoul
- 2002 The 2nd Song-Eun Arts Award, Song-Eun Gallery, Seoul
- 2000 The 19th Grand Art Exhibition of Korean, National Museum of Contemporary of Art, Gwacheon, Korea
- 1999 Grand Prize, The 14th Mt. Mu-dung National Art Competition, Gwangju Museum of Art, Gwangju, Korea
- 1999 The 19th Korean Contemporary Printmaking Competition, Seoul Museum of Art, Seoul
- 1998 Prize of Excellence, The 20th Joongang Finearts Prize, Joongang Daily Newspaper & Ho-am Gallery, Seoul
- 1998 Dong-A Finearts Prize, National Museum of Contemporary of Art, Gwacheon
- 1997 The 17th Korean Contemporary Printmaking Competition, Arts Korea Center, Seoul

## Collections

- Joongang Daily Newspaper, Seoul
- Gwangju Museum of Art, Gwangju

Contact : [an-artist@hotmail.com](mailto:an-artist@hotmail.com) / +81 10 6711 4481